

새 영을 부어주소서

행 2:16-21

TV로 세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기원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어떤 곳에는 날이 꺾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곳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생중계하기도 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에 집중을 하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로부터의 신 천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재림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 24:3~14)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기말에 이런 현상은 급속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지난 한 해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지진과 전쟁과 폭우와 폭풍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대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미래 사회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와 형제가, 가족과 가족이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환란을 뚫고 나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아야 할 말씀은 어떻게 이 환란의 시대에 지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신 천년은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맞이할 세상에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환난을 피해갈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세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 숫자가 채워져야 오십니다. 먼저 순교자의 수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환난 속에서 이루어질

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네번째,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성령충만'입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과학, 지식으로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매달리지만 그것이 미래사회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힘입은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의 특징은 환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대까지는 예수를 적당히 믿어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령이 드글거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정치적 짐승과 경제적 짐승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는 적당히 믿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는 흑백이 확실히 구분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에 버티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환란과 재앙을 이기지 못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부음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환란과 죽음과 저주와 종말은 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횡행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요,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불이 쏟아질 때 환란은 쪼개지기 시작하고, 저주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 혼돈, 죽음,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쁨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요 신 천년의 희망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하고, 성령의 기쁨부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된 사람만이 아골 골짜기를 부활의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폐한 이 땅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경제부흥이 오고, 정치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됩니다. 청소년들의 타락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 힘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날의 사회는 술 취한 사회입니다. 폭탄주를 마시는 사회입니다. 술취함의 결과는 방탕입니다. 타락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무장되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술 취하면 폭행이 시작됩니다. 술 취하면 실수가 시작되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나오는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을 반복한 것입니다. 나팔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맨 먼저 재앙은 일곱 개의 인이 떼어집니다. 첫째인은 흰 말입니다. 둘째인은 붉은 말입니다. 셋째인은 검은 말입니다. 넷째인은 청황색 말입니다. 다섯째 인에는 순교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여섯째 인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일곱 나팔입니다. 나팔이 불리면 지구의 삼분의 일이 없어집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계시록 8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우리는 듣기 싫어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할 미래사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21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이 모든 예언

들이 다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짐승이 판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끝까지 통과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란을 통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통과하면 천년왕국이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환상적인 소망을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갖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